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宜洛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1.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會長 職務代行을 맡으며



沈宜洛

우리 전국의 모든 종인들이 존경하는 명구(明求)회장님께서 지난 5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회장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 大宗會에서는 황망(慌忙)중이었으나 그런 중에도 신임회장을 선출해야하는 입장이어서 지난 6월 11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副會長님들이 숙의(熟議)한 결과 불초 저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셨습니다. 제가 부회장 33년을 연임(連任)하면서 회장을 보좌하며 대종회 운영에 참여 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막중한 회장직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전국 宗人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배전의 지도편달을 경망(敬望)합니다. 고(故) 明求會長님께서 1971년 대종회창립 때부터 부회장으로 9년간을, 1980년부터 회장으로 28년을 합하여 정부회장(正副會長)으로 37년을 역임하시면서 대종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회장님께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도 5처산소(五處山所)의 정화사업과 수호, 한결같이 선조를 봉향(奉享)하는데 정성을 다 하시고 시조묘소 진입로의 확장과 포장, 찬경루, 만세루, 영모재(讚慶樓, 萬歲樓, 永慕齋)의 중수, 악은공 祭壇의 설단과 경의재(景義齋) 창건, 대동세보(大同世譜 : 庚辰譜)를 간행하시고 종보(宗報)를 발간하시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나아가 청화부원군중회 안성회관(靑華府院君宗會 安城會館)건립, 청성백 초배위 청주송씨(靑城伯 初配位 淸州宋氏) 청주회관(淸州會館)구입, 금년에는 靑松에 찬경회관(讚慶會館)을 신축하였고, 무허가 판자집에서 시작한 대종회 사무실을 서울 한복판(중구 오장동에) 5층 빌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업적 외에 더 찬연(燦然)했던 것은 전국 22만 宗人을 大宗會를 중심으로 화락(和樂)의 토대를 이룩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적은 오로지 고인(故人)의 고매(高邁)한 인품과 탁월한 친화력 그리고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인품(人品)의 결정(結晶)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양귀비(楊貴妃)를 잃은 애절한 심정을 시인 백낙천(白樂天)이 읊었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면 비익조(比翼鳥)되고 땅에서 태어나면 연리지(連理枝)되리, 비록 하늘과 땅이 다한다 해도 우리의 맺은 한(恨)은 면면히 이어지리라」고 하였으니 비록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을 떠나셨다 해도 고인을 보낸 우리의 심정이 또한 이러 할 것이며 그날기신 업적은 우리 심문(沈門)과 더불어 오래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會長 직무대행(職務代行)의 선임 경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종회 정관 제 8조 2항에 “회장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하일 때에는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관 제 10조 4항에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회장단회의에서 대행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친애하는 전국 종인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만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6월 30일

大宗會長 職務代行 沈宜洛

明求 大宗會長님 逝去



明求 大宗會長님께서 2008년 5월 2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병으로 서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종인들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빈소를 찾았으며, 6월 1일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선영에 가족장으로 장례를 모셨습니다.

故 明求會長님은 1971년 5월 30일 대종회 창립 당시에는 부회장을 맡으셨고, 1980년 9월 28일 대종회장에 선임되신 후 지금까지 28년간 대종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시조산소를 비롯하여 전국 5처산소의 정화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셨습니다. 1994년 3월에는 서울 중구 오장동에 대종회 자체건물(찬경회관)을 구입하여 입주하셨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대동세보 간행위원장을 맡아 4년여 만에 경진보를 발간하셨으며, 금년에는 우리의 관향인 청송에 문중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찬경회관 신축공사에 착수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회장님의 병환이 깊어지자 모두가 근심어린 걱정으로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자하고 온화하신 회장님을 다시 뵈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나 갑자기 회장님의 타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송심문의 모든 종인들은 회장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숭고한 업적을 추모하면서 삼가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子：長植 忠植 (子婦：金泰淑 邊熙子)
女：賢植 明植 (사위：李 珉 崔宗熾)

청송심씨대종회

靑松沈氏 讚慶會館 준공



▶靑松沈氏讚慶會館 全景

청송심씨찬경회관 준공 경과보고

(2008. 7. 15)

1. 청송군에서 찬경루 일대의 공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찬경루내의 사무실과 시조산소의

제물을 준비하는 주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토(전·답)의 도조가 해마다 감소하

고 있고 보광산의 송이버섯 채취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시조산소의 수호와 제향봉행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춘·추제향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연중 시조산소를 참배 하러 오시는 일가분들이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우리 관향에 청송심문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이 필요하다는 현지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6. 10. 26 회장단회의에서 청송에 회관을 마련하기로 결의함

2. 기존의 상가건물을 구입하고자 여러 곳을 물색해 보았으나 마땅한 건물이 없어 2006. 12. 21 회장단 회의에서 부지를 구입하여 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06. 12. 26 청송읍 월마리 454-1 田 324평을 매입하였음

3. 2007. 5. 18 컨테이너를 철거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5월 31일 경계측량을 하였으며, 6월 28일 회장단회의에서 3층 연건평 210평(각 70평)으로 신축하기로 결의함

4. 2007. 11. 7 경북건축사사무실(대표 함희복)에 설계를 의뢰하여 12월 15일 설계서(3층 연건평 210평)를 완성하였으며, 2008년 1월 5개 건설사로부터 견적서를 접수·검토한 후 2월 12일 8명(대종회 3명, 청송 3명, 안동 2명)이 안동과 청송에 있는 3개 건설사를 방문하여 대표를 면담하고 회사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동에 있는 원성건설(주)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음

5. 2008. 2 22 대종회 사무실에서 원성건설(주) 최금평 대표이사

와 찬경회관신축공사 계약(5억 1,700만원, 부가세 포함)을 체결한 후 3월 1일 착공식을 거행하고 공사에 착수함

6. 대지구입비 5억 4,800만원(5억 1,840만원, 부대비용 2,960만원)와 건축비 5억 8,200[부가세 제외](건축비 5억 7,200만원·설계비 1,500만원·보존등기 & 부대비용 5,200만원) 총 1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8. 3. 13회장단회의에서 건물명을 「靑松沈氏讚慶會館」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음

7. 2008. 6 30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7월 3일 찬경루에 있는집기를 옮기고 비품과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오늘 시조산소에 찬경회관의 준공을 고하는 고유제를 올리고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十二世祖 京畿監司公 諱:演(휘:연) 墓碣銘 (上)



▶ 監司公 諱 演 墓所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의의동 선영하

▶ 묘표석

仁祖 24년(1646) 3월 3일 함경도 관찰사 沈公이 현청(縣廳)에서 죽었는데 부음이 조정과 선비모임에 들리자 모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재상감이 죽었으니 조야(朝野)의 희망이 헛되었도다. 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없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을고」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끈덕지게 사모하는 말들이 한결같았다. 공의 아들 서견(瑞肩)이 찾아와 울먹이면서 나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명(銘)을 이미 선친(先親)의 친구이신 조태사(趙太史) 경(綱)에게 부탁하였으나 묘 앞에 세울 돌의 비음문(碑陰文 : 비석의 등에 쓰는 글. 즉 내용 문)은 없어서는 안됩니다. 황공(黃公)께서는 우리 선군(先君 : 죽은 아버지)의 높임말과 연배간이니 비록 간격은 있었으나 같이 조종 일을 보시고 모든 이력을 고루 아실 것이고 또 先君께서 黃公의 문장을 말씀하신 까닭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의상 사양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어 가정(家狀)을 받아보니 글이 심학사 대부(大學)의 손에서 나왔는데 심대부는 바로 공의 종숙이나 연령과 덕행은 같았다. 평생을 지기(知己 : 자기를 알아준다는 뜻이니 즉 서로가 깊이 이해하는 사이)로서 마음을 나누었으나 그 말씀이 핵실(核實)하고 넘침이 없었으니 이것이 진실한 역사인데 무엇을 더 보태리오. 삼가 그 대범한 것으로서 적어나가겠다.

공의 이름은 연(演)이요, 字는 윤보(潤甫)요, 青松인이나 시조이신 홍부(洪孚)는 고려의 위위승(衛尉丞)이다. 그 뒤에 덕부(德符)라는 분이 있었는데 좌시중(左侍中)으로 청성백(靑城伯)이었다. 그의 아들은 온(溫)인데 영의정으로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이니 이 분이 공의 五代祖父이고 조부의 이름은 용(龍)인데 절충호군(折衝護軍)으로 증직이 좌승지(左承旨)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대형(大亨)인데 진사로서 증직이 병조참판이고 어머니는 청주한씨로서 정부인에 추증되었는데 진사인 증참판 중겸(重謙)의 딸이다.

丁亥(1587)년 10월 18일 계유일에 공을 낳으니 어릴 적부터 재능이 뛰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문리가 숙성하였으나 나이 20세가 못되어 부모를 연달아 잃고 외가에서 공부하였는데 독실한 행동으로 힘써 배웠다. 그의 외가 말 종조부와 둘째인 구암(久菴) 백겸(百謙)과 유천(柳川) 준겸(浚謙)께서 다들 그릇이 크다고 중하게 여겼다.

임자(1612)년에 진사가 되었는데 갑자(1624)년의 변란 때 유관(儒冠 : 선비의 관. 벼슬하지 않은 사람) 두어 사람과 함께 어가(御駕)를 공주까지 호종하여 조정에서 기록을 하고 내시교관(內侍敎官)으로 임명하였는데 환도(還都)한 뒤 벼슬하지 않았다.

丙寅(1626)년에 헌릉참봉(獻陵參奉)에 임명되고 가을에

정시(庭試 : 궁정에서 왕이 친히 치르게 하는 시험)에서 제일로 뽑혀 공의 이름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당시 합격권에 든 사람이 고시관의 자제가 많아서 논란이 일자 그 발표를 취소하였다.

이듬해인 정묘(1627)호란(胡亂) 때 또 어가를 강도(江都 : 강화도를 이르는 말. 나중에 수도를 강화도에 두었던 데서 유래됨)로 호종하고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에 급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가 환도하자 또 벼슬을 그만두고 이해 9월에 명경과(明經科 : 조선 때 식년문과 초시의 한 분과)에서 둘째로 급제하여서 관례대로 사십시(司贍寺)의 직장이 되고 겨울에 六품으로 올랐다.

이로부터 뒤에는 화려하고 좋은 직위로 옮기면서 내외직으로 드나들었으니 외직으로는 경상도 都事에 시재어사(試才御史)가 되고 전라도 경차관(敬差官 : 조선 때 임시로 지방에 보내던 관리. 주로 전곡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음)을 지냈으며 내직으로는 성균관에서 두 번 전적(典籍)을 맡고, 한 번 직강(直講)을 맡았으며, 형조에서는 세 번 좌랑(佐郎)을 맡고, 이조(吏曹)에서는 두 번 좌랑이 되고, 네 번 정랑(正郎)이 되었고,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정(正)을 두 번, 헌납(獻納)을 한 번 역임하고, 사헌부에서는 여섯 번 지평(持平)이 되고, 춘방(春坊 : 세자시강원에서 사서(司書)를 네 번 맡았으니 실상 연임을 두 차례씩 한 것이고 文學을 한 차례 맡았다. 옥당(玉堂 : 홍문관을 달리 이르던 말. 부제학 이하의 관직을 통틀어 이르던 말)에서는 부수찬(副修撰)과 부교리(副校理)를 경유하고 교리를 네 차례 지냈다.

癸酉(1633)년 여름 창덕궁을 수선할 때 공이 도청(都廳)이 되어 그 책무를 총괄하니 실상 다 위임 맡은 것이다. 秋 7월에 공사가 끝나니 임금께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특별히 통정대부의 위계를 더하였다.

9월에 광산현감으로 부임되었는데 광산(光山 : 지금의 광주)이 호남의 큰 고을인 까닭에 현으로 강하하니 다스리기가 난처하나 공으로 하여금 지방 행정을 시험하고자 함이다. 부임하자 곧바로 삼대송사(三大訟事)를 분별 정리하는데 이 때 원근의 사건들을 함께 모아 처리함에 그 판단이 귀신 같으니 민정이 탄복하고 두려워하였다. 공이 정무를 관대하고 어질게 다루나 몹시 엄하여 귀 천민이 다 복종하고 조사(詔使 : 중국의 사신. 여기서는 공을 조사에 비유했음)가 완벽하게 하여 사람들이 다들 신임하니 경내가 소란하지 않았다. 이듬해에 주(州)로 복귀되고 공이 목사가 되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니 지방민이 비석을 세우고 송덕을 하니 공의 겸덕과 선정을 칭송하며 모두들 심야(沈翁 : 심공을 아버지 또는 존귀한 데 비유했음)라고 불렀다.

乙亥(1635)년 겨울에 경상도 관찰사(觀察使)로 선발되었는데 이듬해인 병자(1636)년에 급작스럽게 胡亂이 일어나서 각도에 징병령이 내려졌다. 공이 명을 듣자 통분하여 눈물을 흘리며 곧바로 좌우도(左右道 : 지금의 남북도)로 전령을 보내어 각기 부처별로 국란을 구하도록 절도사(節度使) 허완(許完)과 민영(閔楹)이 다들 명령을 듣고 곧바로 도착했다.

공이 정예병 천여 명을 증군의 최언(崔彦)에게 배속시켜 함께 행진하여 재를 넘어서 빨리 나아갔다. 공이 몸소 먼저 상주에 이르니 이어 장병과 군량이 오고 얼마 안 되어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위급하다는 기별이 와서 곧바로 도내의 일은 도사에게 맡기고 두 종사관으로 하여금 좌우로 분리하여 남북의 명맥을 통하도록 한 다음 스스로 수령(守令)과 찰방(察訪)등의 보좌관을 이끌고 종군하고자 하는 자와 비장(裨將 : 조선 때 감사, 유수, 수사, 병사 및 견외사신을 수행하던 경호관) 등 나머지 병사百여명으로 재를 넘어서 이전에 이르러서 더욱 엄하게 독전하니 두 절도사와 병정이 3만여 명이 되었다.

이듬해 정월 초이틀 쌍령에 도착하여 다음날 아침에 성 아래에 집결하도록 했는데 새벽에 적군에게 습격 당하여 두 진영이 모두 패배하여 장수가 죽고 군병이 섬멸 당하였다. 공이 싸워보고 싶으나 병졸이 없어서 다시 문경으로 퇴각하여 병정을 소집하고 군대를 편성하여 재를 넘어갔으나 성이 함락 당하고 말았다. 언론에서 각도의 책임관리에 대해 문책할 때 남형(濫刑 : 남용한 형벌)이 공에게 미쳐 결국 임피(臨陂)로 귀양가게 되었다.

戊寅(1638)년에 풀려나서 얼마 후에 제주목사가 되었다. 제주가 먼바다 가운데에 있고 서울에서 거리가 먼데 좋은 말(馬)이 생산되고 진주와 피혁과 그 밖의 진기한 물건이 많이 나고 百工과 기교(技巧)가 없는 것이 없는데 목사가 문무를 장악하고 포약하게 거두어들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어업과 공업에 고통이 많아서 관리 때문에 늙은이 경인데 공이 부임하고는 한결같이 바로잡고 오직 상납제도를 시정하니 진주를 깊숙이 저장하게 되고 말들이 늘어나고 살림이 풍족해서 모두들 편안하게 되었는데 더욱 좋은 조항을 마련하고 조정에 청하여 부세를 감하게 하고 좋은 법을 제정하여 오랫동안 모범이 되게 하니 섬에 사는 늙은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오월 그리고 시월

시조시인 심성보

- 양지촌 감자 꽃이
날더러 오라 한다.
- 나물 캐고 씨 뿌리고
시냇물에 얼굴을 씻자한다.
- 호박 씹 즐겨도 보고
정情 붙여 보자 한다.
- 곱게 물든 단풍잎이
한 동네 살자한다.
- 가을빛이 좋다고
소매를 잡고 서서
- 갈무리 부요한 들판
풀어놓고 살자한다.

- 삼익THK주식회사대표이사
- 영남대 대학원 정치학석사, 명예정치학박사
-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위원회 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자기개발이 회사 키운다 - 上

이 달의 CEO 패널은 자기개발의 달인으로 통하는 심갑보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이다.

심 부회장은 30년간 5,000번 강연에 참석했고, 최고위 과정 세 곳을 다녔다. 100명의 패널 중 최장수 CEO이기도 하다. 그가 털어놓는 자기개발의 철학과 효용

500회. 심갑보 삼익THK 부회장이 지난 30년간 참석한 강연 횟수다. 도합 약 8000시간. 심 부회장은 강연회에 갈 때마다 맨 앞자리 한가운데 앉아 녹음 테이프에 강연 내용을 담는다. 몇 년 전부터는 캠코더로 직접 녹화를 한다. 이렇게 쌓인 오디오와 비디오 테이프 각각 3000개. 서울 대치동 그의 집무실엔 강연 테이프를 보관하는 부속실이 딸려있다.

자기개발의 달인으로 통하는 심 부회장이 1970년대 초 고려대 경영대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다. 맨 앞자리에 앉아 녹음을 들이대자 강사들이 당황했다. “코앞에 앉아 가료, 세로 각각30cm나 되는 털 녹음기를 틀어 놓고 강의 시간 내내 녹음을 해대니 교수들이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정치학도가 경영학을 공부하려니 만만치 않아 그런 다.’고 양해해 달라고 했죠. 녹음기가 소형화되면서 카세트 녹음기, 보이스펜을 썼고, 요즘은 아예 캠코더로 녹화를 합니다. 녹음한 것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고 난 후로는 출퇴근 시간과 이동할 때 차에서 들습니다. 시내에서 움직이더라도 보통한 시간은 걸리잖아요?”

자기개발 덕에 기술집약형으로 변신

심 부회장은 요즘 강연 테이프를 디지

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다. 그는 세미나 당일 뿐더러 고려대 경영대학원(연구과정) 외에도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전경련 국제경영원 정보전략최고경영자과정 등 세 곳의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이수했다.

그는 전무 시절 대구 본사에서 2년 근무한 것을 빼고는 줄곧 서울 영업본부에서 일했다. 지방 기업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강연회와 세미나를 쫓아다니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렇게 얻은 지식, 정보를 기업 경영에 활용한다.

“노동집약적이었던 영세기업을 기술집약적인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0년대 삼익THK는 수공구인 줄을 만들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는 상호도 삼익줄공업이었어요, 70년대엔 싹통을 만들었습니다. 인건비가 싸서 그런 대로 괜찮았죠.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자 싹통에 대한 수요는 줄고 인건비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압 싹틀더를 제작하게 됐죠. 이후로는 반도체 장비 등에 들어가는 직선운동 베어링 등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목표관리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한 것, 채권관리 개념을 도입해 불량 채권을 줄인 것, 고객만족 경영과 장점중시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것도 모두자기개발에서 비롯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익은 실수오자에게서 직접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맞춤형 사업을 했다. 도매상을 상대하는 대기업과 판매 경로를 차별화한 것. 심 부회장은 또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대로 영업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제약회사의 포인트 시스템을 벤치마킹 했다.

채권관리 개념 도입으로 불량채권이 줄어들자 기업의 체질이 강해졌다. “우리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민족 아닙니까? 장사 잘하고도 불량채권 때문에 망한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실적을 따져 외상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내줬죠. 거래액이 크면 담보를 잡았습니다. 외상을 많이 주면 물건이 더 잘 팔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어쩔게든 외상값을 받아내야 해당 거래처에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외상 술을 먹어도 외상 안 깔린 집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렇게 외상 채권을 관리하다 보니 외환위기 때도 대손(貸損)이 적었습니다.”

삼익은 매출액이 1300억원대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그래도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은 외면한다. 그래서 회사 실정에 맞

는 사람을 뽑아실정에 맞는 교육을 한다. “필요한 사람을 구할 길이 없으니 뽑아서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명문대 출신이 순발력이 있다면 지방대 등 비명문대 출신은 끈기가 있고투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강해요. 바로 비명문대 출신의 장점이지요. 그런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는게 장점중시 경영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학벌사회에서 능력사회로 가야합니다.”

심 부회장은 서울 영업본부 직원들에게 매주 월요일 조회 때마다 자신이 직접 녹화한 강연 테이프를 틀어준다. 그는 “자기개발에 힘쓰는 직원들이 일도 잘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인간개발연구원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해 직원5명이 매주 조찬 강연에 참석하고 있죠.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임원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3월호 한국의 CEO를 말한다.

이 달의 패널

심갑보 THK대표이사 부회장

대중회 부회장 <다음호에 계속>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CD롬 2개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鬻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 栗谷 李珥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 - ③

- 沈星求 이사 -

1. 서 언
2. 본론 - 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 1) 율곡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 2)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으로 개혁을 주장
 - 3) 파주향약(坡州鄕約)에서 선양(先養) 후교(後敎) 강조
 -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
3. 결론 - 이기치묘의 발전적 원리와현대적 관점

2. 栗谷의 更張論과 弊法으로의 改革을 주장

모든 제도는 정치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폐단이 있게 되면 완전하지 못하므로 고쳐야 하는 것이다.

율곡은 更張에 관해서 만언봉서(萬言封事) : 선조 7년(1574)년 초에 선조는 국난국을 위한 직언(直言)을 구하였다. 율곡이 39세 때 우부승지가 되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이때 글을 검은 천주머니에 넣어 봉하여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이었다.에서는 “정치는 때를 나는 것이 중요하고, 일은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긴요하다. 정치를 하면서 때에 알맞게 할 줄 모르고 일을 당하여 실질적인 공효에 힘 쓰지 않는다면 비록 성왕(聖王)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나 다스린다. 하여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법은 때에 맞게 제정하여야 하니, 때가 변하면 법도 같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응지논(應旨論時事疏)」에서는 “때가 달라지고 일이 바뀌었는데도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는 “時務는 동일하지 않아서 각기 마땅한 바가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創業, 守成, 更張일 뿐이다.” “守成하여야 하는데 고치는데 힘쓴다면 병이 없는데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경장하여야 하는데 지키는 것만을 따른다면 병에 걸렸는데도 약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사간원시사소(司諫院時事疏)」에서 율곡은 안민정책에 관하여, 폐단과 병폐를 조사하는 것, 일족(一族)을 너그럽이 대하는 것, 외방 관료를 잘 뽑는 것, 옥사와 송사를 공평하게 하는 것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율곡이 논한 시사(時事)와 시폐(時弊)에 관련하여 ‘一族을 너그럽이 대하는 것’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일족을 너그럽이 대한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그들의 삶을 보 전하지 못하는 것이 일족에게 연유가 있기 때문이다.”…(중략)… 일족이 침해당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다. 수군과 육군은 태반이 충원되지 못하고 단지 빈 명부만 보존하고 있다. 거기에 정규군 외의 병졸까지 보태어 수자리를 군적에 의하여 나가도록

독촉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대가로 포를 바치게 하니 이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각 官司에 선발하여 올리는 선상(選上)을 그 대가로 받으며 부역에 대신 하도록 했는데, 일시적인 役事로 인하여 그때마다 수를 더 불리어 民戶는 점점 줄어들고 선상하는 수는 점점 늘어나서 징수하는 고통을 백성들이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오래 묵은 땅도 그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고, 비록 떠돌아다니게 되어 가호가 없어지고 풀과 나무가 숲을 이루었더라도 반드시 일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경작하고 수확한 땅과도 조금의 차등이 없으니, 이것이 그 세 번째 이유이다. 이 세 가지 폐단은 백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큰 환난이었다. 조정에서는 更張하려 하지 않고 수령들도 보고 조차 하지 않으니, 그 고통은 이웃에 또 다른 이웃에게 과급되어, 그 형세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가 도망다니니 온 나라의 밭(田)이 모두 묵히게 되고 황폐해져 그만 들 형편이다.”

이 글은 율곡이 31세 때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으로 임직하면서 동료와 함께 時務에 관한 세 가지를 논한 상소이다. 당시 호구, 전답, 세금, 군역 등 시폐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경장으로서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민생은 날로 고달피진다는 것이다. 양민과 천민의 혼인규정을 보면, 태종 때는 종부법(從父法)을, 세조 때는 종전법(從賤法)을 실시하여 자연적으로 천민이 늘게 되었다.

더 큰 원인은 호적법의 목적이 첫째 균등한 부역(賦役), 둘째 떠돌아다니는 것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만, ① 징역수에게 과하는 노역인 정역(定役)과 공물(貢物), 전세(田稅) 등의 부담이 매우 무거웠고 ② 관리(官吏)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고 가렴주구(苛斂誅求)하였으며 ③ 私家에서 이식을 늘리는 것이 만연되고 ④ 가뭄과 수해, 흉해 등으로 인하여 기근이 들거나 가난해져 권세가나 토호(土豪) 또는 양반들의 농장에 기탁하는 등의 원인으로 서민층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과 군인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당시 국가의 1년 수입은 1년의 지출보다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율곡 당시의 사회현상이었다. 율곡은 근 20여 년에 걸쳐 관직생활을 하면서 늘 경장(更張)과 혁폐(革弊) 조정을 주장하였다. 혁폐에서 서자에게도 벼슬길을 터주고 공사전(公私賤)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양민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율곡의 「진시사소(陳時事疏)」의 내용을 살펴본다.

“만약 신의 말을 쓰신다면 서자 및 공사전 중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각자 양식을 준비하여 南北道에 들어가

방비하도록 하십시오. …(중략)… 응모자가 많도록 하고 병조(兵曹)에서 재능을 시험하여 보내십시오, 서자의 벼슬길을 터주고 전에(賤隸)는 면천하여 양민이 되게 하며, 사천(私賤)은 반드시 本主가 단자(單子)를 병조에 올린 뒤에 재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인을 배반하는 노예가 없도록 하고 그 대가는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골라 주십시오.

만일 무재(武才)가 없는 사람이라면 남북도에 곡식을 바치도록 하되 멀고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많고 적음의 수량을 정하고, 벼슬길을 터주는 것과 양민이 되는 것도 무시(武試)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군사와 음식이 약간은 방어 준비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천인으로서 무기를 운반한 사람은 모두 양민이 되게 하였고, 서자로서 종군한 사람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때에 따라 시행하셨던 규례입니다.”

율곡이 제안한 방법은 이미 세조 때에 시행되었으나 율곡의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회신분제도를 타파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은 양반의 자식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을 개혁하여서,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모두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양민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율곡의 이 글은 48세 때인 宣祖 12년 癸未 4월의 일이다.

당시 율곡은 홍문관대제학 겸 배의정부우찬성(弘文館大提學 兼 拜議政府右贊成)으로 있었다. 다음 해 정월 율곡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그의 이상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율곡의 폐법 개혁(弊法 改革)은 민생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당시 국왕이던 宣祖도 비록 “여러 관직을 두고 여러 직분을 나누는 것이 단지 민생을 위한 것”임을 알았지만, 선조는 개혁에 뜻이 없었으니, 율곡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율곡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에는 “제(齊)에 들어오는 규칙은 士族과 서민들을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을 모두 들어오게 한다.” 하였고, 「東湖問答」에는 “郡邑의 유생은 모두 정원이 있으니 …(중략)… 만약 정원 외의 유생 중에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군역(軍額)에 보충하여야 한다.”라 하였다.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는 “서인과 천민 가운데서 일을 맡길만한 사람을 뽑아서 장무(人)을 둔다. …(후략)… “士人을 敎訓으로 정한다. 교훈은 인근(庶人)과 賤民 가운데서 글을 모르는 자”라 하였다.

율곡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태시켜 군역을 보충할 수 있다고 여겼으니, 이는 양반 계급이 갖고있는 군역 면책이라는 특권을 타파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율곡의 향약은 분명히 향민을 한 가족과도 같이 여기려는 것이었으며, 사족이나 서민도 모두 들어올 수 있게 하여서 공자의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유교무류(有教無類)라는 말처럼 평민도 글을 읽을 수 있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會旗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宗會旗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代宗會 (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 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 180,000원)	

어야 한다고 하였다. 율곡의 향약은 서천(庶賤) 역시 초급관리인이 될 수 있었으며, 사람을 가려 구별하여 그가 이해 못하는 글과 모르는 법을 가르치고 이끌었으니, 향약의 목적은 “나gado 들어올 때 서로 짝하며, 지키고 망블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것이 다.”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宗 事 消 息

五世祖 安孝公 諱:溫(휘:온) 端午節祀 奉行



▶ 안효공 묘소

初獻:斗 燮
 亞獻:大 燮
 終獻:錫 鎔
 大祝:相直 執禮:相稷
 執事:應鎮 相億 應植 彥村
 ▶ 獻誠金: 농협중앙회 수원역지점 500,000
 봉익대 부공 철원중회 200,000

2008년 6월 8일(음: 5. 5일 端午) 午前10시에 安孝公 할아버지의 端午節祀를 奉行하였다.

제향봉행을 마치고 11시부터 安孝公宗會 2008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500여명이 넘는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斗燮 宗會長님의 인사의 말씀이 있었으며, 載玉財務의 회무보고를 자세히 설명하고, 2007년도 결산(案)심의승인의 건의 鳳鎮監査님의 감사보고에 이어 相稷總務님의 2007년도 결산보고와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종도처분 및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모든 안건 보고를 듣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하였다. 금년에는 전년 총회에 비하면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모두가 합심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토의하는 뜻 있는 총회를 끝내고, 앞으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님들의 노고가 더욱 많으시라 믿겠습니다.

이어서 쾌청한 날씨에 준비된 도시락을 보급

安孝公宗會 2008年度 定期總會 開催



▶ 수원 팔달구 이의동 산의실

받아 정자나무 그늘 밑에 둘러앉아 점심시사를 하면서 한 잔의 술을 권하며 그동안의 안부와 정담을 나누는 좋은 분위기는, 모든 것이 安孝公 할아버지의 陰德으로 믿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끝맺었다.

八世祖 敦寧府都正公 諱:順道(휘:순도) 遷葬告由祭奉行

2008년 6월 14일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우랑동

初獻:相烈 亞獻:元燮 終獻:容圭 大祝:相直
 ▶ 獻誠金
 青松沈氏大宗會 100,000
 安孝公宗會 500,000
 信川公宗會(金浦) 200,000
 贊求(大宗會副會長) 100,000

八世祖 敦寧府都正公 諱:順道(휘:순도) 墓所 遷墓



▶ 牛浪洞 忠孝苑 가족묘지

青松沈氏 七世祖 諱:溪(內資寺判官公)께서 서기 1467년 5월 李始愛 난(亂)에 出戰 순절하시어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우랑동 巽坐에 의이장(衣履葬) 이후, 공의 장남인 諱:順道 돈녕부도정공(敦寧府都正公) 이하 後孫 묘소가 산재(散在)되어 있어 세월이 변천함에 따라 수호(守護)치 못함을 宗中の 衆意를 모아내자시관관공 묘소 좌측에 家族墓地를 조성하여 서기 2008년 6월 천묘(遷墓)하고, 묘갈, 호석, 묘명, 상석을 신수(新葺)하고 墓道入口에 牛浪洞 忠孝苑碑를 건립하고 묘소를 바라보니 子孫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마음이 흐뭇하다 先祖님의 이름이 비석에 남아 山이 天高에 푸르르고 天地와 더불어 유구(悠久)하리라.

◆ 천묘(遷墓)

- 八世祖 諱:順道 敦寧府都正公
- 九世祖 諱:巨源 贈戶曹參議公
- 十世祖 諱:鏞 贈吏曹參議公
- 十二世祖 諱:暉 宗親府 典籤公
- 十五世祖 諱:若溪 贈戶曹參判 都摠府 副摠官公
- 十六世祖 諱:儻 通德郎公

以下 後孫十九기 遷墓

內資寺判官公派宗會	理 監	總務理事	副會長	會長	顧問
	事	事	事	事	問
	捧燮	京燮	昌燮	相九	文燮
	松燮	完燮	明燮	相錄	相鶴
	鍾燮	銀燮	仁燮	大燮	相會
					根燮
					相範
					相烈
					相鎔
					相仁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홀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세까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外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종회)

기행수필

세 가지 자랑 - 싱가포르에서

18:40분 비행기는 예정대로 착륙한다. 공항에 내렸다. 깨끗하고 넓어 보인다.

박모가 깔리는 어스름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입국절차가 간편하여 가벼운 느낌이다. 이 공항은 '창이' 국제공항이다. 1981. 7. 1일 개항, 7월 2일 전두환 대통령이 다녀갔다고 안내원이 말해 준다. 이 '창이' 공항은 시설설비 등으로 보아 세계 제2위의 공항이라는 것이다. 어쩐지 공항 내에서 으스스한 곳을 살피지 않아도 화장실의 눈에 잘 띄는 곳마다 위치하고 있고, 공중전화는 시내에 한해서는 무료다. 상수도는 중요시하고 하수도는 경시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화장실은 으스스한 곳에 위치하여 찾기가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적당한 위치에 얼른 눈에 뜨인다. 일본 나라다 공항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나라는 하나의 국가라기 보다는 도시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만큼 작은 나라다. 전 국토 616km(서울 정도) 인구 250만, 말레이시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1~2km 정도의 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으나 시내 버스가 왕래하고 있다. 적도에서 127km 밖에 안 되는 열대 우림 기후인데도 대만이나 태국보다 시원한 느낌이다. 이곳에 무역항이 건설된 것은 1814년 영국에 의해서였다. 그 이후 자유 중개 무역항으로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고 1876년에는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동남아시아에 걸친 정치, 경제, 군사상의 거점이기도 했으나, 1963년은 말레이시아연방, 자바, 사라와크드와 결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인종, 정치, 경제 등 융화가 어려워 1965년 다시 말레이아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산업으로는 무역과 그것에 관련되는 금융, 해운 등 3차 산업과 수출

원료(고무)의 1차 가공을 중심으로 경공업이 발달되었다.

최근에는 동남부 주류 지구에 대규모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기는 하나 국내시장은 협소하고, 말레이시아와의 대립관계로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다.

사회 구성과 민족적인 면으로서는 75%가 중국계이고, 말레이시아 15%, 인도 7%, 기타 3%로 되어 있어 중국의 일부를 연상케 한다. 이들은 서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제각기 고유한 종교, 문화, 사회, 습관을 유지하는 복합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80년대 GNP는 5000불이나 되는 국민으로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버스에 오르니 이미 날은 저물었고, 거리에는 불빛이 찬란하다. 안내원은 현지 소개에 바쁘다. 싱가포르의 삼결(三潔은 거리, 물, 정부가 깨끗하고, 간척사업으로 4~5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곳이 고속도로로 변하였으며, 현재 공항도 바다를 매우고 지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길을 꿰뚫고 설치된 콤베어벨트에서도 흙이 계속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놀란 것은 흙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한다는 것이다. 본국에서는 흙을 파낼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일쇼크 이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요인은 세계 중심지점이라는 천혜의 조건 때문이다. 현재 34개의 항공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선박도 자바해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하루 평균 750척의 배들이 이곳을 경유하므로 항만 사용료가 이 나라 경제수입의 1위

인 동시에 세계 1위이기도 하다. 다음은 정유공장(세계 3위)으로 비행기, 선박 등의 급유 수입이고, 3위가 관광수입이다. 연간 관광객은 약 350만 명, 이 나라 인구수 보다 100만 명이나 더 많다.

정부직제는 내각책임제로 의회는 단원제이고 75석 중 단 1석이 야당이다. 이 나라 수상 이광요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수상직을 맡고 있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광요 수상의 정치적 역량을 말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나라는 75%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편리한 대로 할 수 있고, 주택도 정부에서 아파트를 짓고, 신혼부부에게는 32평형을 분양해 주되, 17년 후에는 자기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지가 있어도 (사실상 없다고 함) 집 없는 거지는 없다는 것이다.

벌금제도도 철저하다. 시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거리에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250불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왕년에는 그렇게도 유명했던 남만의 거리 차이나타운은 빈민촌이 되었고, 금명간 철거된다고 한다. 이 철거 작업을 한국 건설 업체가 맡았다는 것이다. 그 외의 건축, 도로, 하수도 등 공사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술자 약 3,000명이 체류하고 교민은 1,000명 정도란다.

2050분, 저녁식사다. 밥, 생두부에 양념장 얹은 것, 생선구이, 어단, 국, 새우등이고 특징은 파와 고추가 유난히 많이 들어 있다.

여기서는 시계를 다시 앞으로 한시간 돌려놓아야 한다. 이곳 싱가폴은 전지역이 면세로 되어 있다. 상계를 좌우하는 것은 일본 회사와 상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홍콩에는 바가지와 가짜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하나, 그것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안내원의 말이다.

택시 요금은 시간제와 거리제를 병행하고 있다. 시간당 15불 정도, 기본요금에 에어컨이 있는 것은 1불 20센트, 없는 것은 1불 정도이다.

저녁을 먹고 다시 호텔로 가고 있다. 밤이지만 거리는 과연 깨끗하다. 안내원의 말이 하도 지상천국인양 하기에 내 시선은 더욱 날카라와 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차량으로 응시하고 있는데, 호텔로 접어드는 커브 길가 공원에서 60세 가량의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다. 나는 왜 그런지 보아서 안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하면서도 인간 생활에 차이는 있을지 언정 절대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21시 아폴로 호텔에 도착, 718호실인 내 방이다. 몸을 씻고 커-텐을 걸으니 그대로 꽃 세게다. 하늘에는 별꽃, 거리에는 자동차의 불꽃, 공간에는 빌딩의 불꽃이다. 이곳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낮선 땅의 야경이라 화려해 보이니 보다. 집을 떠난 지 일주일, 집 생각을 할 사이도 없이 서두르는 나날이었다. 거리나 돌아보려고 유형과 함께 호텔을 나서자 승용차가 즐비하다. 몇 미터는 갔을까? 택시기사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다. 그저 걷는다고 했는데도 '에이 남자끼리 어디를 가요' '야스', '야스', '와카이 와카이' (日語로 갔이 싸다. 쫓다)를 반복하면서 따라 온다.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내 알 수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는데도 계속 따라오기에 모른 체 했다. 호텔 주변의 차들이 투숙객의 차이려니 했는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용 차량도 많았던 것 같다. 밤이라 방향도 짐작할 수 없고 거닐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거리라 돌아오고 말았다. 괴로도 풀겸 자리에 들었다. 이역數 萬리라서인지 아예 집은 거리감마저 느끼지 못하겠다.

이사 沈晟求

미국 전문기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적인 명승지 나이아가라폭포는 미국의 동북부 버팔로시 근처에 있다. 그리고 이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국경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어서 어느 편에서나 관광할 수 있지만 그 진경은 아무래도 캐나다 쪽을 더 꼽는다.

내가 닥터·朴의 안내를 받아 캐나다 영사국을 거치고 국경을 넘어서 1시간 남짓의 드라이브 끝에 캐나다령 나이아가라 폴에 당도하였을 때, 폭포의 주변에는 오색찬란한 백화와 울창한 수목 그리고 넓은 잔디가 잘 다듬어진 광대한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공원의 곳곳에는 벤치와 기념탑, 동상, 꽃시계 등이 마치 그림같이 수놓아져 있었고, 높이 1백16m의 스카이론 회전 전망탑과 호텔들 그리고 각 종 매점과 주차

장 등의 편의 시설들이 늘어서 있었다.

공원을 메운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고 강안 절벽위의 철책에 기대어 서서 폭포의 경관을 굽어보는 구경꾼들의 모습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들 뉘를 잃은 듯이 보였다. 나도 마침내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폭포를 내려다 보았다.

에리호의 물을 온타리오호로 실어 나르는 나이아가라 강이 하류에 이르러 급격히 낙차를 보이면서 형성된 이 폭포는 마치 지면에 묻은 빈 항아리의 아구리로 주위의 물이 흘러 들어가듯 떨어지는, 높이 50m, 폭이 3~4백m는 뽕직한 원호(圓弧)모양의 웅대한 것이었다.

넓은 폭포 연변으로 끈임 없이 흘러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은 산산이 부서져서 백옥같이 흰주름커튼을 이루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분화구 연기 같은 물안개를 일구어 피워올리니 그 즐거가 하늘에 이어진 듯 구름 높이에 닿았다.

안개기둥 한 허리에는 7색도영롱한 산뜻한 무지개가 빛겨 걸려있고 낙수가 이루는 웅장한 굉음은 주위의 온갖 잡음들

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자연의 위대한 힘을 과시라도 하는 듯 폭포에 접근하는 관광선을 조롱하며 흔들여 대고 있었다.

보고 또 보아도 신비롭고 황홀하기만 한 이대 자연의 조화에 취하여 있던 나를 흔들여 깨워준 것은 닥터·차이었다.

『여보게, 저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까이 가서 한 번 보세.』 우리는 승선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유람선「안개의 처녀」에 몸을 실었다. 배는 격류를 헤치며 강을 거슬러 올라 좌우의 아메리칸 폭포와 발전소 건물을 지나쳐 폭포로 접근해 갔다. 그러자 이제까지 안개구름으로만 보이던 물방울들이 완연한 소나기가 되어 쏟아져 내리니 승선할 때 받아들인 초대형 우의로도 감당이 되지 않아 눈을 뜰 수도 없고 또 떠본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물, 물, 물의 홍수였다. 대양 중에서 폭풍우를 만난 듯 짙은 안개와



역수 같은 물벼락 속에 휩싸인 모든 승객들은 격동하는 조각배 간간에 매달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만 이 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또 몇도 모르고 들고 탄 카메라며 오페라·글라스를 잊지 않게 챙기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그리고 설마 관광선이 어찌되랴 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드릴과 서스펜스를 맛보았는지...

배가 이윽고 심연을 벗어나 밝은 햇빛 아래 나서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 숨들을 내쉴 수 있었다.

이사 沈英輔

人事

撥先: 東亞日報 편집국 부국장
 의영: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 총괄국장
 載玄: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평강: 소방방재청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수옥: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실 브랜드전략팀장(상무)
 일보: 광동제약 순천공장 JCO생산팀장
 흥택: 근로복지공단 대구사무국장(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상열: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응규: 서울도시철도공사 5678고객센터장
 상민: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부사장
 상신: 단국대 죽전캠퍼스 학생지원처장 겸 사회봉사단장
 재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맹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상보: 애경그룹 ARD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정연: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병조: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재민: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개발단장
 재환: 외환은행 미금융 지점장
 우단: 기업은행 주안북 지점장
 정섭: 하나대투증권 은평지점장

誠金 感謝합니다

- 理事會費 -

庚周	300,000	2008	副會長
光澤	50,000	2008	안성
鍾默	50,000	2008	군산
相學	50,000	2008	쌍문동
仲燮	50,000	2008	임천면

- 宗報贊助 -

內資寺判官公派宗會	300,000	
하성친목회	150,000	
載金	300,000	정릉동
명보	30,000	國民銀 5.27일
鍾默	30,000	군산
등섭	30,000	흥성
유택	50,000	용두동
載喆	50,000	양주(옥정)
相奉	61,298	在美
相學	50,000	쌍문동
應來	100,000	냉천동
우식	50,000	의정부1동

- 舍人公派宗會 獻誠金 -

水運判官公派宗會 10,000,000

誤字訂正

宗보71호
 • 8면 宗보찬조: 200,000 弘輔(晉州)를 晉州宗會로

理總會顧
 事務長問
 昌燮 載天 愚天 容燮
 相植 相燮 昌植 眞燮 允燮
 長湖院 宗親會
 任員名單

찬경회관 준공식 헌성금 입금 및 지출내역

입금 내역		지출 내역	
악은공파총회	1,000,000	<비품·전자제품>	<5,905,000>
도총제공파총회	200,000	선풍기, 전화기	125,000
인수부윤공파총회	500,000	벽시계	250,000
안효공파총회	5,000,000	책상	900,000
이경공파총회	1,000,000	TV(42인치 벽걸이 PDP)	950,000
이경공파총회장(심원섭)	200,000	컴퓨터(삼성 DMZ69A)	1,000,000
내자시관관공파총회	200,000	모니터	250,000
효창공총회	1,000,000	프린트(팩스겸용)	450,000
울산 내금위공파총회	1,000,000	냉장고	600,000
안성총회(시계)	250,000	냉은수기	150,000
일산 법곳총회	500,000	전자레인지	100,000
청주총회	200,000	냉난방기(벽걸이)	680,000
남서울총회	100,000	세라믹전기렌지	450,000
곡성총회	200,000	진공청소기(150,000)	서비스
광주 금당산총회	1,000,000	<소모품>	<1,298,000>
순천총회	100,000	슬리퍼	60,000
경주종친회	100,000	거울	90,000
예산총회장(심승택)	1,000,000	침구류	300,000
대종회부회장(심찬구)	100,000	청소용구, 쓰레기통	54,000
악은공파부회장(심능광)	100,000	사무실 커튼	514,000
악은공파부회장(심상국)	100,000	휘호표구비	280,000
C&C 대표(심재훈)	*1,000,000	<행사비용>	<5,469,000>
경북건축사(합희목)	50,000	기념품(타올350)	2,275,000
합 계	14,900,000	중식대(300인)	1,500,000
		식대(석식, 조식)	246,000
		술, 음료, 생수	468,000
		떡	600,000
		현수막	200,000
		청소비	180,000
합 계		합 계	12,672,000

• 회호: 松隱 沈禹植(한국서예협회 전이사장) • 花環: 大邱宗會長, 安東宗會長, 靖夷公派宗會長, 삼성지적 측량공사 代表 沈相廷
崇祖永昌
 東谷 沈愚慶(곡성 도정공파총회장)
松茂柏悅
 • 花盆: 파천식당, 천일광고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지	유 사	전 화 번 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相 燾	010-6889-7733
			宜 亮	016-9225-3618
2 세 조	합문지후공	합 열	瑢 燮	011-676-0892
3 세 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 澤	011-732-5768
4 세 조	청성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 輔	019-480-9994
靑 松	청 송심씨 찬경 회 관			054-874-3400
	館 長 載 洪			018-505-7611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송 금 안 내

찬조금 또는 종보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청송심씨대총회)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총회)

*2008년 6월 5일자로 신규 개설

청송심씨대총회 전화: (02)2267-7857